

사무엘상 16. 요나단의 승리 (삼상 14 장 1-23 절)

들어가기

지난 13 장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 사무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고,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리 저리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장에서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을 쳐 승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사무엘상 12 장에 기록된 사무엘의 예언이 사실임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상 12:22,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1.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자세 (1-3 절)

1)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 절)

- ✧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용기 있게 들어감!
- ✧ 아버지에게 비밀로 붙임.

2) 그러나 아버지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석류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2 절)

- ✧ 주목: 사울 왕에게는 아직도 자신을 따르는 용감한 군사 600 명이 남아 있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의 지위가 높고, 자신을 보호할만한 군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주저하고 지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당시 사울 왕 옆에는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함께 있었습니다. (3 절)

- ✧ ‘아히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형제’, 또는 ‘경배자’란 의미.
- ✧ 그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으로 당시 실로에서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였음.
- ✧ 그런데 그는 사울의 군대와 함께 있었지만 (병사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또 도망갈 때,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음.
- ✧ 아마도 당시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닐까?

결국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완전한 사역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수아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역자들이 되어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요나단은 험난한 길을 뚫고 블레셋 진영까지 찾아 갔습니다. (4-7 절)

- 1) 당시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던 곳은 천연적인 요새로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고 험하였습니다.
 - ✧ 특별히 주목할 것은 블레셋이 머무르던 요새 주위에는 ‘보세스’ = ‘미끄럽다’ 와 ‘세네’ = ‘가시’ 라는 뜻의 바위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4,5 절)
 - ✧ 그러나 이런 험하고 위험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요나단의 결심을 꺾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 장 24 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의 사람은 요나단처럼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히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묵묵히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2) 주목: 6 절의 요나단과 그의 종과의 대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① 할례의 유무를 논함.
 -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증표!
 - 할례 없는 자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며,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
 - 요나단은 이 할례를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
- ②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란 질문.
 - 불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적인 표현..
- ③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요나단의 절대적 믿음의 고백.

이런 요나단의 믿음의 자세를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요나단의 병기든 자는 요나단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뒤를 따를 것을 결단했습니다.

3.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구했습니다. (8-15 절)

1) 요나단이 구한 표징은?

✧ 블레셋 병사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지 않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는 표징으로 삼겠다는 것

2) 요나단 일행을 발견한 블레셋 병사들의 반응은?

✧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고 반응.

3) 이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고 확신하며 올라가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4)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요나단은 처음으로 20 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죽이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반나절 같이 땅’ 이란 소 한 거리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의 넓이를 의미.

5) 이런 요나단의 예상치 못한 용맹스러운 공격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병사들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5 절)

✧ 15 절에서 주목할 표현은 ‘떨었다’ 는 말입니다.

15 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 특별히 마지막의 '큰 떨림' 이란 말은 원어로 ‘게르닷 엘로힘’ 이라는 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떨림’ 이라는 뜻입니다.

✧ 곧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도우시기 위해 땅까지 진동하시며 블레셋의 마음을 떨게 하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은 저들의 외적인 조건이 나빠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용맹스러워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맘속에 두려움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고,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 요나단의 공격으로 블레셋 진영이 소동하게 되자 사울 왕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16-23 절)

1) 블레셋 진영의 소동을 알게 된 사울 왕은 즉시 전열을 점검한 뒤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16-17 절)

2) 이때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것을 명했습니다. (18 절)

■ 주목: 법궤를 향한 사울 왕의 잘못된 가치관

- ✧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위로 법궤를 이동시킴.
- ✧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느 정도 물리치게 되자 자기 맘대로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 시킴.

곧 사울 왕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고, 법궤까지 맘대로 동원해서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요나단의 공격으로 두려움 속에 당황한 블레셋 병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20 절)

- ✧ 이때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출신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서 블레셋과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 ✧ 에브라임 산지로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 소식을 듣고는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 고난과 고통의 때는 모른척하고 피하였다가 다시 좋은 날, 승리의 날에는 함께 하려는 필요에 따른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고독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은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참고: 사자굴을 선택한 다니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4) 결국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을 떠나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요나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3 절)

- ✧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 **생각하기** :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